

K-지역박물관, 화천 박물관

이종연*

1. 박물관의 개요



<사진1> 화천 박물관 전경(사진 출처:화천관광 홈페이지)

화천군 하남면에 위치한 화천 박물관(강원 화천군 하남면 춘화로 3337)은 북한강 최상류에 위치해, 선사시대와 청동기와 철기 그리고 한성백제 시대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고대 문화 보고의 고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화천의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7000여 점의 선사시

*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이다. 강원 지역 문화콘텐츠 및 문학 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0421whddus@naver.com

대 유물들과 1000여 점의 민속자료 및 분단 관련 자료들이 있다.

현재는 조선시대 성리학자 곡운(谷雲) 김수증(金壽增, 1624~1701)이 화천에 은둔하며 곡운구곡과 화음동정사를 설치하기까지의 과정과 그곳에서 보낸 생활을 소개하는 ‘곡운구곡 특별전’을 기획전시로 하고 있다.

화천 박물관의 전시 목적은 강원도 화천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여러 시대의 유물들과 하천 생활을 바탕으로 한 민속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한국 전쟁의 전투로 인하여 분단의 아픈 역사를 관람객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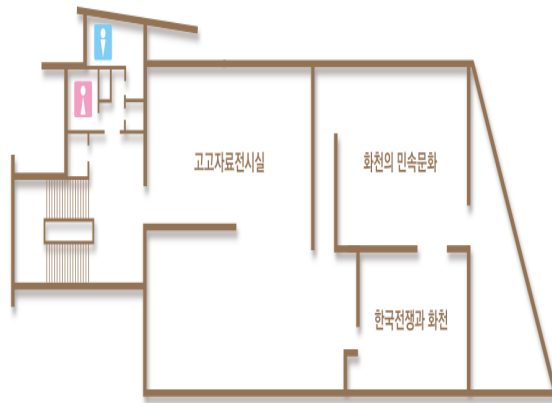
2. 박물관의 구성 및 특징

화천 박물관은 야외, 지상 1층, 2층과 옥상 전시실로 총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2> 화천 박물관 1층 도면(사진 출처:화천박물관 홈페이지)

1층에는 기증자 전시실, 사랑방, 미디어월, 꿈지락 배움터, 민속 놀이터가 있다. 기증자 전시실은 화천의 민속자료를 기증해 주신 분들의 기증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사랑방은 바닥을 유리로 하여 그 속을 보이게 하여 사랑방을 재현해 놓은 전시물로 사랑방을 하늘에서 보는 듯하게 하여 색다른 느낌을 주는 전시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월은 화천의 역사와 문화유산 그리고 관광자료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커다란 벽과 같은 장치이다. 꿈지락 배움터와 민속 놀이터를 통해 민속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고 있다.



<사진3> 화천 박물관 2층 도면(사진 출처:화천박물관 홈페이지)

2층에는 고고자료 전시실과 화천의 민속문화, 한국전쟁과 화천을 주제로 한 전시실 3개가 있다. 고고자료 전시실은 집자리 176기, 수혈유구 32기, 굴립주 건물 14동, 토광묘 11기 등 유구의 수가 230여 기가 넘어 국내 최고의 밀집도를 보여주는 청동기 시대의 집단 취락 유적지였던 화천 하남면 용암리 일대에서 2001년에서부터 2003년까지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찾아낸 유물 등 선사시대 유물을 전시하는 곳이다. 화천의 민속문화 전시실에는 화천의 주거와 의생활, 농경생활, 수변생활의 모습을 실물과 가까운 인형 및 구조물로 재현 전시하고 있으며 도자기, 민속생활용품, 화천을 빛낸 인물들의 조각상, 계성리 석등이 전시되어 있다. 한국전쟁과 화천 전시실에는 한국전쟁 당시 화천에서의 사건들과 사진 등을 함께 전시해 놓았다.

옥상 전시실에는 현재 ‘곡운구곡 특별전’으로, 곡운구곡도를 비롯한 관련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김수증이 조선시대 화가 패주(溟州) 조세걸(曹世傑, 1635~미상)을 시켜 곡운구곡을 그리게 한 실경산수화인 ‘곡운구곡도’를 볼 수 있으며, 현대 동양화 화가 최영식이 그린 제2곡 청옥협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김수증이 화천에 지내면서 쓴 글, 편지, 글자 등을 전시하고 있다.

야외에는 너와 지붕 정자와 연자방아 등 과거 화천 사람들의 삶을 느껴 볼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마련되어 있다.



<사진3> 화천 박물관 야외 시설물(사진 출처:화천박물관 홈페이지)



<사진4> 곡운구곡 특별전(사진 출처:화천박물관 홈페이지)